

류수영 '공존'...김수미 '情'...유재석 '추억'

'동물티비' 류수영, 데뷔 첫 단독 MC '수미네반찬' 김수미 설 요리 등 공개 유재석, '놀면 뭐하니' 동거동락 특집



연기자 류수영·김수미, 방송인 유재석(왼쪽부터)이 각각 KBS 2TV '류수영의 동물티비', tvN '수미네 반찬',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설 연휴 예능 경쟁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1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설 연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안방극장은 잠시나마 특집 프로그램들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스타들의 이름 석 자를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연기자 류수영, 김수미와 방송인 유재석이 맡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류수영은 KBS 2TV '류수영의 동물티비'로 데뷔 23년 만에 첫 단독 진행자로 나서고, 김수미는 tvN '수미네 반찬:엄마가 돌아왔다'를 통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전한다. 유재석은 MBC '놀면 뭐하니?'의 '2021 동거동락' 특집을 내놓고 2000년대 '예능 감성'을 다시 끄집어낸다.

●류수영...동물과 인간의 따뜻한 '공존'

11일과 12일, 이틀간 방송하는 '류수영의 동물티비'는 동물과 인간의 다양한 공존 방식을 들여다본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몸소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보기에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이다.

그는 영화 24도의 강추위에도 제작진과 함께 3개월여 간 유기동물보호소 등 동물 긴급 구조 현장을 직접 누볐다.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스튜디오에서 진행만 해도 됐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느껴야 시청자에 감동과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내 박선도 '잘해보라'며 응원하고 있다"며 "정규 편성이 목표"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연출을 맡은 김영민 PD도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행자"라며 류수영의 활약에 기대감을 당부했다.

●김수미·유재석...추억과 향수로 승부

김수미는 11일 설날 특집 방송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잠시 멈춘 '수미네 반찬'의 문을 다시 연다. 우리네 할머니들이 그렇듯, 매사에 "밥심"부터 챙기고 보는 푸근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따뜻하게 맞는다. 개그맨 장동민이 보조를 맡고, 이연복 요리사와 연기자 홍석천, 그룹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이 수제자로 나선다. 며느리이자 연기자인 서효림이 특별 출연해 가족 모임의 느낌을 제대로 낸다. 메뉴까지 제대로 설 분위기이다. 제철음식인 꼬막과 봄동을 활용한 시금치 꼬막무침과 봄동만두, 경상도 차례상에

서 빠지지 않는 쥐포튀김의 요리법을 소개한다.

유재석은 20년 만에 2001년 히트 프로그램인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을 안방극장에 재소환한다. '놀면 뭐하니?'의 '2021 동거동락' 특집으로 댄스 신곡식, 꼬리잡기 게임 등 당시 인기 코너들을 재현해 시청자의 향수를 자극한다. 추억의 '테크노 댄스'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면서 "이겨져, 이겨야!"를 외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가수 탁재훈·이영지, 개그맨 조세호·홍현희 등 '예능 유망주'들이 대거 참여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 언택트 2 아카이브 3 스포츠스타

'설 특집' 키워드 3가지

11일부터 시작하는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방송되는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소재의 특집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작 인원 최소화 등 촬영 환경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각종 방책을 동원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빅쇼(Big Show)...안방극장도 '언택트'

역시 '흥의 민족'답게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11일 방송하는 KBS 2TV '조선팝어게인'은 이날치, 악단광칠 등 국악 밴드를 비롯해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래퍼 한해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재해석하는 국악을 선보인다. 1월30일

500명의 온라인 관중 앞에서 녹화를 마쳤다. 송준영 PD 등 지난해 추석을 달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 KBS는 '어게인' 시리즈를 언택트 공연으로 꾸준히 키워갈 계획이다.

1월8일 마친 MBC '트로트의 민족'은 11일과 12일 양일간 '트로트의 민족 갈라쇼'로 돌아온다. 우승자 안성준 등 화제의 출연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트롯전국제전'도 '톱 14'에 오른 참가자들이 꾸미는 '트롯전국제전 치'를 12일 내놓는다.

●아카이브...방대한 영상 자료 총집합

최근 방송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아카이브(archive)가 설 연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기록을 보관한다는 뜻의 아카이브



KBS 2TV '조선팝어게인'

는 방대한 방송 자료들을 활용하는 포맷을 가리킨다. 11일과 12일 연이어 방송하는 KBS 2TV '라떼는이' 대표적이다. '체험 삶의 현장' 등 과거 인기 예능프로그램과 이정재, 전도연 등 스타들의 데뷔 시절 등을 과거 영상으로 되돌아본다.

2010년부터 명절마다 방송한 MBC '아이돌스타육상선수권대회'(아육대)는 코로나19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대신 11일과 12일 방송하는 '아이돌스타선수권대회:명예의 전당'으로 각종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사이니 민호, 하이라이트 윤두준, 에이핑크 보미 등 '아육대'를 빛낸 역대 참가자들이 모두 모였다.

●스포츠...식지 않은 스포츠 스타의 인기

스포츠 스타들의 인기도 좀처럼 식지 않는다. MBC '쓰리박:두 번째 심장'은 야구 박찬호, 골프 박세리, 축구 박지성 등 '월드 클래스' 조합만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박지성이 예능프로그램 고정 출연자로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마지막일인 14일부터 방송해 이들이 요리와 사이클 등 저마다 다른 분야에도 전하는 과정을 담는다.

11일과 12일 방송하는 2부작 SBS '골때리는 그녀들'은 여성 조기축구회를 다룬다. 개그맨 이성미·이정실 등 베테랑부터 모델 아이린·송해나 등 새내기까지 각 분야 여성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황선홍, 김병지, 이천수 등 축구 스타들이 이들의 감독으로 나선다.

유지혜 기자



'2021 경록절 in the Hous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가요계에 색다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은 언택트 공연은 물론 동료 가수와의 이색 협업 등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가수들의 움직임이 계속된다. 특히 아이돌 위주로 재편된

가요계에서 비교적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인디음악 영역이 문턱을 넘고 있다.

크라임넷, 윤도현, 잔나비, 조동희, 노브레인, 선우정아, 안예은, 브로콜리너마저 등이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 경록절 in the House 이번엔 집에서 놀자'를 연다. 러시아 밴드 스타킬러즈, 일본 밴드 소운지 등 해외팀 등을 비롯해 총 75개 팀이 참여한다.

경록절은 인디 1세대 밴드 크라이닝트 베이스리스트 한경록이 매년 자신의 생일에 동료들과 즉흥적으로 공연을 하며 놀던 파티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음악 축제로 바뀌었다. 이후 흥대 인디신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고, 크리스마스이브, 핼러윈과 함께 '흥대 3대 명절'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까지 경록절 행사를 했던 공연장 무브홀이 코로나19로 폐업하면서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5시간 동안 즐길 예정이다. 각각의 집이나 작업실, 연습실, 공연장 등 여러 장소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해 선보이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축제처럼 포스터, 티셔츠, 맥주잔, 엽서 등 굿즈도 만들어 판매한다. 크라이닝트의 소속사 측은 8일 "코로나19로 공연장이 문을 닫으면서 뮤지션들이 갈 곳을 잃었다"며 "새로운 시대에 인디 음악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이번 공연을 통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크라이닝트·노브레인을 비롯해 한국 인디음악사 주요 뮤지션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긴 '밤이 깊었네'와 '들었다 났다' 등 음원이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평생 교회에 다녀도 자신이 믿노라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말 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

복음 깨달은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지, 가는 곳이 생명 살리는 사역지, 일하는 곳이 복음 전하는 선교지입니다.

- ① 성경은 쉽습니다. ② 복음은 간단합니다. ③ 믿음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이미 결론 내어주신 쉬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믿음은, 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7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18절)

한국복음회복운동 문의 ☎ 010-3708-8138

돈 오늘 당장 쓰실분!!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5G 폴드2 / 아이폰12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5602-8088 (매주도 가능) (주)참바분동산
연체 / 신불 / 월변 OK
저신용자OK
당일대출OK
신용불량자, 금융불량자
저신용 당일 대출
010-4831-3855 유원상사